

현대 건축을 이해하는 길과

그 의의에 관해서

정인국

는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한 단적인 예로 필자가 1968년초 영국의 R. I. B. A를 방문하였을 때 가장 흥미를 가지고 알고 싶었던 ARCHIGRAM에 대해서 그곳 사무총장에게 <그들의 영국에서의 평가 여하>라는 질문을 한바 그는 입을 담은 채 어깨를 웃속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여준 것으로 미루어 잡지를 통하여 본 평가와 현지에서의 실지 상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음을 알았다. 또한 스미손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미국의 평가는 극히 보잘것 없는 아전인수격이론과 작품으로 부루탈리즘이라는 미명아래 사람들을 현혹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현지 런던에서는 그 건물이 극히 보편적인 건물형이 될만큼 그의 건축 이론이 지배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흔히 우리들이 가장 쉽게 외국잡지를 훑어 보는 가운데서 얻어진 현대건축에 대한 파악이 어느정도 정확한 것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잡지 등 속에서 얻어 볼 수 있는 저명한 건축가의 작품은 물론 그것이 수록된 그 순간에 있어서 그때를 지도할만큼 대표적인 의의있는 작품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 작품이 나오게 된 이면의 여러가지 사항들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사항들이란 다음과같이 지적할 수 있다.

1. 그 작품과 작가의 역사적배경
2. 그 작품평가의 철학적 근거
3. 그 작품을 평한 평가론의 사상경향과 위치
4. 그 작품의 세계건축사의 좌표
5. 그 작품의 한정된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의의
6. 그 작품이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견.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뒷면에 둘러논채 잡지가 떠고 있는 협소한 저널리시틱한 면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조간신문에 살인사건이 우리들을 놀라게 하는 식의 자극밖에 줄 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현대건축을 진실로 이해하려면 단편적으로 산견되는 이러한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며 어떤체계 밑에 정리하여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필자는 금번 <근대건축론>의 계속으로 <현대건축론>을 짜내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태도와 론조를 취하였다. 즉

첫째, 건축발전을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론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사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맨 첫번째 시도는 비교론적인 방법으로

요사이같이 건축에 관한 정보교환이 빠르게 또 넓게 행해지고 있는 때는 없다. 우리들이 국내에 앉아서 입수할 수 있는 외국잡지만 하더라도 20여종에 달하며, 또 국내서 출판되는 각 기관지와 건축지도 벌써 5, 6종을 헤아리고 있다.

한국건축가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외국 건축의 동향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한국 건축계를 선봉에서 이끌고 나아가갈 만한 혁신적이며 타당한 지도 이론이 없기때문에 그 길을 직접 외국건축가들에게서 얻을려는 노력의 발로이며, 둘째로는 현저하여진 세대교체의 단계에서 자기 자신을 사회에 크로즈업시켜야 하는데 그 길로는 외국건축가들의 작품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겠다는 절실한 욕구, 셋째로는 시시각각으로 변천하는 건축사회의 정세에 대해서 뒤떨어 저서는 자기의 건축가로서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초조감등이다.

그런데 과연 외국이나 국내의 잡지를 통해서 참된 현대건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들의 건축활동의 어떤 지침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택한 프렛차의 방법이 널리 알려지고 있고 또 최근에 탁월한 미술평론가인 기테온은 그의 스승의 뒤를 이어 사회의 의식구조와 문화형태가 모든 예술현상의 근원——벨푸린이 〈Sehform〉이라고 한 것——이라고 보아 이것으로 모든 예술현상을 이해하려는 방법등이 특출하다. 벨푸린은 또 매우 암시적인말로 「건축사에서 형식발전의 주기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서구의 어떠한 건축양식도 그 크라식시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바로크시대를 가지고 있다. 단지 그것이 완전한 발전을 이루려면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한다」라고 한 바 있는데, 그간 건축의 발전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면 기테온의 사회의식구조를 근원으로 하는 주기성을 파헤쳐 가면 훌륭한 방법이 창안될 것이 예견되었기 때문에 우선 이 방법을 이론적으로 체계지워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즉 「사회적 의식구조의 근간으로(Logos)적인 것과(Pathos)적인 것의 둘을 설정하고 이 둘이 시간의 장단은 달리하나 항상 주기적으로 쇠퇴성장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택하면 최근의 상황은 여태까지의 마스터 빌더들의 이론이나 작품태도는 사회의 의식구조와는 배치되기 때문에 쇠퇴하여 지고 그대신 그와 반대되는 양상이 상당한 시간의 과도기를 거치면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론이나 원리는 없다」는 태도와 「사회적 발전이 항상 실사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건축의 양상도 부단이 성장 발전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필자 저 〈현대건축론〉 제2장 참조)

둘째 한 시대 또는 한 보편적인 건축의 형이 진행되던 시기의 전반적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 그것은 다음 번천하는 시기와 비교하며 그 번질된 내용을 알기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흔히 우리들은 단편적인 건축만을 취급하여 전반적인 공통된 특질을 잇기 쉽다. 가령 최근에 전위적 작품의 작가로 소개되어 있는 로버트 벤츄리(Venturi, 건축사 1970년 1호 게재)와 미국의 저명한 일본2세 작가 미노루 야마자키사이에는 얼핏보면 하등 연관이 없는듯하다. 고전적이고 섬세한 이론가인 야마자키는 미스의 후계자로서의 제2세대적인 존재인 반면에 벤츄리는 제3세대를 자처하면서 하나는 현실긍정의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적인 현실부정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만이 다르고 건축표현의 근거는 동일하다. 그 근거는 인간존중과 절

충주의이다. 야마자키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즐거움과 쾌락의 경지를 조형으로 추구하고, 벤츄리는 인간이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모순성과 모호함을 솔직하게 긍정하며 둘 모두 과거 시대적 양식으로 함입하고만 작가들이다.

또 벅민스터 풀러와 영국의 아키그램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듯이 느껴지나 실제로 이 둘사이에는 매우 가까운 연결이 맺어지고 있다. 즉 무한대의 공간,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 우주시대의 사회가 요구하는 공간처리를 이루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환점을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점에서 그치며 시작한 전반적 상황과 공통된 성질을 끄집어 내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세째, 개별적작가들에 대해서 그 시대, 그 나라, 어떤 위치를 찾아내고 있는지를 알아야한다.

여기에 참고로 〈건축사〉의 월별 70년대 작가의 이름을 들어 보면

- 1970년 1월호 (Robert Venturi)
- 2월호 (Candilis 팀)
- 3월호 (Hans Hollein)
- 4월호 (Paul Rudolf)
- 5월호 (John Wilson)
- 6월호 (James Stirling)

잡지의 성질상 작가들에 대한 사회적평가의 순열이나, 현대적의의면으로 따진 선후문제를 순차로 배열계재할수는 없다.

그러나 이 작가 모두가 70년대작가로 같은 계열로 나열하기에는 너무나 성질이 다른 작가들이 현대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들고 있는 것이다.

포올 루돌푸는 70년대 작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래에대한 예견이 없는 작가이고 윌슨이나 스타링도 어디까지나 고전에 밀착하고 있는 작가이며 칸디리스 팀 역시 다른 특출한 몇사람의 도시계획가와 비교할때는 너무 고전적이며, 겨우 여기서는 벤츄리나 홀라인이 우리들의 인상으로는 현대의 첨단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잡지를 통하여 입수된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여 작가의 건축창작에 양식으로 삼을려고 하면 이에대한 반추소화작용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말하면 넓은 시야에서 총괄적으로 현대작가를 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

즉 근대여명기에서 있었던 모진 진통이 무엇때문에 생기었는지?

그 진통끝에 찬란하게 빛을 보이게된 근대건축 성숙기의 성질은 어떤 것이며, 그때 형성된 사회의 식구조와 조형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맺어지고 있는가?

성숙기에서 다음 전환기로 옮겨지는데는 어떤 힘이 작용하였고 또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파악하는데서 작가의 이론과 작품에 대한 참된 의의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와 반대로 작가를 단편적으로 아는데 그치는 결과로 초래하는 부작용은 크다. 건축발전의 순로와는 역행할 수도 있고, 무구적 무개성의 작품세계로 타락하기도 쉽고, 우왕좌왕 건축의 본질자체도 상실하는 결과에 이르고 말수도 있다. 더우기 지금 현대 건축의 상황은 백귀야행(百鬼夜行)이라고 누가 표현한것같이 혼돈하고 것잡을 수 없는 양상이기때문에 건축의 발전이나 작가의 작품을 총괄적으로 연속적으로 명확한 주전을 발판으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 (필자 저<현대건축론> 제1장참조)

네째. 현대건축을 정확히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한국건축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중국적으로 필요한 것은 한국건축가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기 위한 작업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한국 건축이 지내온 길을 찾아 보고, 현재 한국건축이 세계건축의 어느 위치에 처하여 있는지 알아야 하며, 다른나라들이 거쳐온바를 훑어 보면서 우리들이 갈길을 찾아야 한다.

최근 국내 건축지의 대부분은 외국의 전위작가의 소개나 지난 거장들의 추도호나 외국의 문헌소개로 일관하고 있다. 건축지가 맡은 과업의 하나는 한국건축의 지도적이념을 발표하여 이에대한 비판과 순화작용을 거쳐서 우리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는 일이다.

물론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지도적건축가들이 너무 밀폐된 한계속에서 자위적 건축활동을 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사실, 둘째로는 건축평론이 아직 수립되지 못한 상황, 셋째로는 건축가들의 수준이 균일되지 못한 현실, 넷째로 가장 큰 이유로는 한국건축이 심한 혼란기인데 이것을 극복할 아무런 포텐셜에너지를 갖지못한채 담보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들로 해서 정보제공이라는 저급한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된 일이다. 앞으로는 서서히 어느나라던지 초기에는 꼭 한번 겪고 지나는 격렬한 논

쟁의 시기를 거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써야한다. 이러한 논쟁의 예로는 1930년대 백시코의 예술혁명론, 1953년대 일본의 전통논쟁, 1945년대 이탈리아의 사실주의 표현논쟁, 등을 들수 있으며, 이 나라들이 현재 세계 최고위의 건축문화를 형성한 나라임을 상기할때 고도의 고유한 건축문화수립을 위하여서는 의식적으로라도 이 논쟁을 불러 일으켜야한다. 그간 한국건축계에도 많은 건축논쟁이 있었다. 부여박물관, 국립종합박물관, 경주박물관등의 전통건축에 대한 문제, 건축설계를 둘러싸고 외주문제와 현상설계의 부당성시비, 전술적인 정부시책에 대한 비판과 시정안논의, 한국건축가의 사회적 직분에 관한 여러문제 토의 등으로 소연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나 하나도 명확하고 수긍이 갈만한 결론을 얻은 적이 없다. 각기 제멋대로의 해석과 안이한 처리방안으로 얼버무려 끝을 맺고 만다. 한국건축계의 큰 병폐의 하나로 이것을 제거하는 노력이 우선 앞서야 한다. (필자 저<현대건축론> 제3장 참조) 끝으로 위에서 지적한 세계현대건축이론의 이해와 한국건축가들의 현실문제추궁이라든가, 세계 여러나라의 건축동향이나 건축가들의 작품의 분류 분석같은 일은 건축창조행위와는 하등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왜그러냐하면 너무 이론이나 분석 분류가 건축창조행위보다 앞설때는 자유스런 활동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그로피우스가 일찍이 건축활동의 7개의 교훈으로 든바 하나로서 「어떤 이즘, 어떤 분류행위는 건축사가 건축평론가들의 작업으로 그치며, 건축창조 활동에는 해로울지언정 도움은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듯이 위에서 적은 일련의 작업은 건축가의 기본소양으로 필요할뿐이고 여기에 속박받아서서는 안된다. 건축은 다른 예술부면 같이 어떤 작가의 내면에서의 우발적 충동이 더 앞서서 행하기기보다는 좀 더 깊은 철학적 사고의 뒷바침이 절실한 행위이다. 그래서 언제나 생각하며, 연구하며, 인간이나 사회와의 대결에서 타결점을 구하는 필사적인 노력의 과정에서 좋은 결과는 얻어지게 마련이다.

현재 한국건축계의 특질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심한 불균형, 새로운 사대성의 노출, 관능적 피상으로의 질주, 건축과 도시의 유리등으로 말하고 있다. 이것들을 극복하는 길은 옳바른 현대건축사조의 파악과 그 길로 우리들을 적응시키는 길밖에 없다.